

三田渡碑 滿洲文

成 百 仁

一

이 글은 三田渡碑 滿洲文의 보다 정확한 判讀과 주석을 시도한 것이다. 우리 祖上이 남긴 이글육적인 碑文을 다시 들추는 까닭은 여기에 적힌 滿文의 語學的인 重要性에 있다. 이 碑文이 세워진 해인 1639年(仁祖 17年 崇德 4年)은, 1632年 有圈點 滿洲文字가 쓰이기 始作한지 不過 7년째 되는 해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碑文의 表記法에 至大한 關心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가령 滿文의 위쪽에 七行으로 새겨진 碑題에는 語末 n이 Pre-classical Period의 蒙古文字의 語末 n을 닮았다든가, 碑題에서만 유독 ‘功’의 表記가 蒙古字 表記方法 그대로 güng으로 되어 있다든가, 本文에서 語末 r의 表記文字가 蒙古式이라든가 하는 注目할만한 特色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편 康熙 乾隆 年間의 정제된 표기법과 相當한 差異와 流動을 豫想했든 筆者는 그 표기의 정연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본 碑文의 滿文이 최초로 번역 소개된 것은 1924년에 발표된 M. Forbes A. Fraser, F. R.G.S.의 英譯인 것으로 알고 있다⁽¹⁾. Fraser는 이보다 앞서 1888년에 W.R. Carles의 同 碑文 漢文

(1) M. FORBES A. FRASER, F.R.G.S.: Tangu Meyen, London, 1924, pp. 174—183에 The Manchu Part of a Monumental Inscription in Corea in Chinese, Manchu, and Mongol. 이란 제목으로 만주문과 그 英譯이 소개 되었다.

部分의 번역을 도와준 일이 있었다⁽²⁾. 이 Carles의 번역은 韓國人이 적어 보낸 것에 의한 것이고, 발표되기 一週日 전에 Mr. Colin M. Ford, H.B.M.(Acting Consul-General in Corea)이 보낸 拓本을 토대로 논문뒤에 정오표를 붙이고 있다. 中國에서 領事로 있던 Fraser는 아마도 이때 滿文의 拓本을 入手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뒤 1928年에는 鴛淵一氏에 의해서 同碑文의 滿·蒙·漢文 全文과 그 日譯이 이루어지고 본 碑文의 內容을 中心으로 한 鮮清關係의 歷史的 考察이 발표되었다⁽³⁾.

이보다 앞서 1919年에 朝鮮金石總覽 下卷에 單·동문의 석판사진과 漢文이 실리어 있으나 單문에 관한한 그 것으로 정확히 읽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鴛淵一氏의 이 碑文의 內容에 關한 詳細한 논고는 이 碑文의 滿文을 읽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논문속의 單문의 로마자 전사는 너무 많은 오식과 잘못된 곳이 있다. 氏의 전사법에 關한 附言⁽⁴⁾을 참고하더라도, 萬一 漢文이 없었더라면 그 滿文전사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러한 번역이 나왔을리가 없는 곳이 여러곳에서 발견된다.

이에 比해서 Fraser의 滿文 로마자 전사는, 그의 표기법의 특징인 ü와 u를 區分하지 않고 모두 u로 전사한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정확하며, 語順의 差異를 감안한 그의 英譯은 名譯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滿洲語 特有的의 表現法에 이르러서는, 두 言語의 構造의 差異로 고심한 흔적과 아울러 그의 滿洲語理解의 限界點을 들어낸 곳도 없지않다.

最近의 것으로는 金芳漢 教授의 논문이 있다⁽⁵⁾. 이 논문은 蒙古語 部

(2) W.R. Carles: A Korean Monument to Manchu Clemency; Journal of the Chin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XIII, New Series No.1, 1888, pp.1-8.

(3) 鴛淵一: 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上, 中, 下ノ一, 下ノ二) 史林 第十三卷 第一~四號 1928.

(4) 鴛淵一: ibid. 13卷 1號 pp.21, 22. 「譯字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kh, gh를 거이 모두 g로 略하고……」云云.

(5) 金芳漢: 三田渡碑 蒙文에 關하여, 東亞文化 第四輯, 1965, pp.59-96.

分을 爲主로 한 것이지만 言語學者에 의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밑을 수 있는 전사와 번역인 것으로 되어 있다. 동 논문에서 滿文에 대해서는 大意만을 소개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 글을 쓰는데 蒙文의 번역과 만문 대의에 많은 힘을 입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로마자 전사에 있어 위 두 논문과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譯註에서 밝히고자 한다. 다만 不得已한 경우가 아니면 인쇄의 편의상 鴛淵氏와 Fraser의 전사체제와 Möllendorff의 전사법을 대조해서 Möllendorff의 전사법으로 고쳐서 인용코자 한다. 不得已한 경우란, Fraser가 ū, u의 區別없이 u로 전사한 경우라든가 鴛淵氏가 子音字 앞에서 q자를 사용한 경우등이다. 이러한 경우는 그대로 引用한다. 鴛淵氏는 ng를 n위에 점을 찍어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오식이 나와 있다. 이러한 오식도 모두, 잘못된 것과 함께 지적했음을 밝혀둔다. 다만, Fraser의 滿文에는 句讀點이 原滿文과는 相關없이 적히어 있는데 이는 일일이 밝히지 않고, 필자는 原文에 있는 句讀點만을 옮겼다. 해석에 있어, Fraser와 鴛淵氏의 번역과 見解를 달리하는 點은 一一이 모두 밝히지는 않았다.

附記：本碑石의 現況에 대해서 몇가지 적어 두고자 한다. 이 國恥의 碑는 近世에 와서 여러가지 곡절을 겪었다.

碑石의 現在의 位置는 서울特別市 城東區 松坡洞(舊 京畿道 廣州郡 中岱面 松坡里) 三田渡의 舊 受降壇의 옛터에서 正南方 직선 거리 約 700m 되는 地點에 옮겨져 있다. 現 松坡洞의 洞長이며 오랜동안 그 고장의 面長이었던, 그리고 碑石을 옮길 당시 관여 했던 鄭虎成氏의 報告에 의하면 1952年(?) 高位層의 暗示로 大韓獨立青年團員이 主軸이 되어 200餘名이 밭줄을 걷고 넘어 드리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55年 李 前大統領의, 國恥의 碑에서 보기 싫으나 貴重한 것이니 잘 길

이 문어서 보관하라는 命令으로 碑身만을 크레인으로 뽑아 문어 두었다 한다. 그것이 다음해 큰 장마로 강둑과 受降壇이 流失되어 碑身이 江속에 쏜은 문친채 노출되어 지나오다가 1959年 가을 一箇月餘의 作業끝에 現在의 位置로 옮겼다고 한다.

W.R. Carles의 (1888) 報告(註 2)에 依하면 漢文이 前面에 새겨져 있고 後面엔 滿文이 있었다고 (蒙文에는 言及이 없음) 하는데 잘못된 報告같이 생각된다. 鴛淵 一氏는 「三百年間 屈辱을 참아 오다가 日清戰爭에 이르러 清朝가 敗北하자 처음으로 이 碑石을 엮어 버렸다고 傳하여 지고 있다」⁽⁵⁾는 報告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었으나 그 때 碑身이 뽑혔다가 다시 꽃을때 現在와 같이 反對로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빈창 一路에 있는 清朝가 自國語를 後面에 새겼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現在 거북의 머리쪽 즉 전면의 左側에 滿文, 右側에 蒙文, 後面에 漢文이 새겨져 있고 거북은 正南向으로 앉아 있다. 그리고 同碑의 左側에는 碑身이 뽑히어져 없어져 버린채 있는 좀 작은 臺石이 있는데 碑身이 뽑힌 자리는 가로 1m 5cm 세로 37.5cm의 크기로서 규모가 좀 작다.

碑石의 크기에 대해서는 여러 報告가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다시 적어 둔다. 碑石의 臺石이 되고 있는 거북은 길이 3m 60cm, 가로 2m 57cm, 높이 1m 4cm, 그 위에 있는 碑身은 글이 적힌 板石과, 위에 붙은 雙龍의 조각이 있는 螭首로 되어 있는데 글이 적힌 板石 部分은 가로 1m 47cm, 세로(두께) 39cm, 높이 3m 24cm 이고, 그 위쪽 螭首의 높이가 95cm이다. 따라서 地上에서의 총 높이는 5m 23cm이다. 螭首의 雙龍은 如意珠를 감싸고 있는데, 前後面 모두 左側龍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며 右側龍은 입을 다물고 있다.

끝으로 拓本을 指導해 주신 金芳漢 教授, 手苦를 해준 言語學科 助教

(5) 鴛淵一: *ibid.* 13卷 1號 p.17.

張炳起氏, 明知大 學生 조국환 신안군 兩君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數次에 걸쳐 拓本에 여러가지로 協助해준 松坡派出所長以下 職員여러분 松坡 우체국 職員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略 號

(O)=鴛淵一：清初に於ける清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1〕滿洲文とその日本譯. 史林 第13卷 1928.

(F)=M. Forbes A. Fraser, F.R.G.S.: The Manchu Part of a Monumental Inscription in Corea in Chinese, Manchu, and Mongol; Tangu Meyen, London, 1924, pp.174—181.

二

大清皇帝功德碑 滿洲文 譯註

1. daicing ⁽¹⁾	大清
2. gurun i	國의
3. enduringge	聖
4. han i	皇帝의
5. güng ⁽²⁾	功
6. erdemui	德의
7. bei ∴	碑

- (1) 滿文의 碑題는 碑文 第一行과 反復되는 닷인지 (F), (O)에서 모두 생략되어 있다. 語末 n의 字形의 특이하다. 語末 n은 Pre-Classical Period의 몽고자의 final n을 닮았다. (gurun 및 han)
- (2) 이 碑文속에는 本文 一行을 비롯해서 몇 곳에 「功」의 音寫인 gung이 나타난다. 碑題에서만 유독 güng이란 表記가 나타난다. 이것을 gūng으로 전사하지 않은 까닭은 g가 女性母音字 앞에 쓰는 g이기 때문이다. a o ü 앞에 쓰이는 g字가 아니기 때문에 蒙古語式으로 güng으로 전사했다. Möllendorff의 전사법으로 ü인 男性母音은 蒙古語에서는 女性母音으로서 ü로 전사된다. 新滿洲語에서 功은 gungge로 나타난다. Manju Mongol Toli Bicig, Ulaanbaatar, 1968에서는 滿: gungge=蒙: güng으로 나타나고 本碑文의 güng과 字形이 꼭 같다. 慎重을 期해서 만들어졌을 이 碑文속에 gung과 güng이 混在한다는 것은 간단히 過渡期的인 混亂으로 가볍게 보아넘길 사실이 아닌 語學的인 重要性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本 碑文은 有圈點 滿洲字가 쓰이기 始作한 1632년으로부터 不過 七年 밖에 되지 않는 1639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時期를 前後해서 쓰여진 滿文에는 이와 꼭 같은 現象들이 나타난다. 筆者는 考分하여 그 당시의 많은 原文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李學智: 清太宗崇德三年向朝鮮強索向化 女眞事的一件滿文檔案 (田村博士頌壽東洋史論叢, 1968)의 滿文檔案影片 pp.701-704에 의하면 wesihun, ninggun 등이 여러번 나타나는데 모두 u는 ü字의 꼴을 하고 있다. (wesihun p.701-2行, p.704-11; ninggun p.701-2, 702-4, 704-11) 그런데 turgun의 gu의 u는 字形이 新滿洲語에서의 같다(p.702-1, 704-7). p.703-3의 nimeku, 동 10行 ineku의 語末 u字도 ü의 語末字로 나타

- I. daicing⁽³⁾ gurun⁽⁴⁾ i enduringge han i gung erdemui bei :
 大清 國 의 聖 皇帝 의 功 德의 碑.
- II. daicing⁽⁵⁾ gurun i wesihun erdemunggei⁽⁶⁾ sucungga aniya
 大清 國 의 崇(高貴하고) 德(有德한 분)의 元 年
 tuweri jorhon⁽⁷⁾ biya de :
 겨울 十二 月 에

나 있다. u 字의 表記의 混亂은 모두 k, g, h 다음에서 나타난다. p. 704-7의 sūn의 ū에는 右側에 圈點이 나타나 있다. 그 밖의 特異한 綴字 neon(non), nemu(emu), yoni(yooni) 등은 同論文의 附註에 지적되어 있다. 또한 李德啓 編譯「阿濟格略明事件之滿文木牌, 1935, 國立北平故宮博物院文獻館印行」의 1636-1638년에 걸친 木牌影印과(二十六片), 松村潤: 崇德三年의 滿文木牌について(和田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1961)에 다시 소개된 滿文木牌들 속에도 表記法의 甚한 差異를(新滿語와 比較해서) 나타내고 있다. 松村潤 教授는 同 論文에서 이러한 表記法의 特異性을 指摘하고 있다(p. 887). 李德啓에 의해 소개된 二十六編의 木牌는 松村潤: The Early Manchu Tablets (Proceedings of The Third East Asian Altaistic Conference, 1969, Taipei, China)에 다시 新滿語의 綴字로 고쳐서 報告되어 있다. 崇德 初年間의 二十八片의 同 木牌속에는 松村潤 教授가 指摘하고 있드시 綴字法 및 圈點法의 施行에 큰 混亂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같은 年代인 本 三田渡碑는 그 표기가 新滿語의 正제된 表記法과 거이 一致하고 있음에 反하여 同 木牌들은 甚한 混亂을 보이고 있다. 筆者는 이 混亂을 表記法上의 變遷史上의 資料以上의 言語學的 重要性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混亂속에는 때로는 規則性이 발견된다. 本 碑文에서와 같이 同 本牌를 속에서도 主로 女性 母音과 함께 쓰이는 k, g, h 다음의 u가 ū의 字形으로 나타난다. 또 많은 新滿語 綴字에서 ū로 나타나는 것이 o로도 나타난다. No. 13 musei→müsei (No.는 李德啓 소개의 목패 사진번호; ü는 新滿語의 ū字) gulu→gūlu, ninggun→ninggūn; No. 17 gulu→gūlu, gungan→gūngga(?); No. 23 hoton→hūton, gulu→gūlu(三例); No. 16 kubuhe→kūbuhe(二例), ujude→ūjude; No. 22 hoton→hotūn, sumingguwen→suminggūwen (本稿에 참고되는 部分만 지적한 것이며 新滿語 綴字는 松村潤; The Early Manchu Tablets에서 인용함)

- (3) (F): Dai-tsing; Möllendorff c=Fraser ch 인데 ts로 전사하고 있다. 原文에는 ts로 전사해야 할 特殊文字가 쓰여 있지 않다.
- (4) 주 (1) 참조.
- (5) (F): dai-tsing
- (6) (F): erdemungge; i가 누락되어 있음
- (7) (F): jorgon, 清文鑑에는 jorgon의 끝이 나와 있지만, 본 비문에는 jorhon.

III. gosin onco⁽⁸⁾ hūwalyasun enduringge han • acaha be efuléhengge⁽⁹⁾
 어진 너그러운 穩和한 聖 皇帝, 和平 을 깰것

menci deribuhe seme • ambula jili banjifi coohai⁽¹⁰⁾ horon
 우리로부터 始作되었다 고 크게 성 내고 軍士의 威力

enggelenjifi⁽¹¹⁾ dergi baru cing seme jici yaya geleme
 來臨하여 동녘 向하여 불붙듯이 확하고 와도 모두 두려워

alihakū : tere⁽¹²⁾ fonde meni sitahūn ejen nan han de
 대항하지 못하였다. 그 때에 우리의 寡 君 南 漢 에

tomofi geleme olhome⁽¹³⁾ niyengniyeri⁽¹⁴⁾ juhe
 자리를 정하고 두려워 하며 저어하며(畏懼) 봄 여름

de fehufi⁽¹⁵⁾ gerendere be aliyara gese susai⁽¹⁶⁾ ci inenggi :
 에 밝고 날 밝기 를 기다리는 것 같은 五十 餘 날,

dergi julergi⁽¹⁷⁾ geren jugūn⁽¹⁸⁾ i cooha siran siran i gidabuha :
 東 南 諸 道(路) 의 군사 續 續 擊破되었다.

(8) (O): oncu

(9) (O): edulehengge

(10) (F): cooha; i 가 누락됨.

(11) (O): enggelejifi

(12) (O): teri

(13) (O): alhome

(14) (O): niyangniyari

(15) (O): wegufi

(16) (O): sunsi. (O)에는 이 部分 susai ci를 五十餘日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殆五旬으로 된 漢文과 蒙古語部分에 의존하고 있는것 같다.

(17) (O): juleri

(18) 滿文老檔 崇德 元年 十一月 末頃부터의 侵攻 준비 기록, 十二月의 朝鮮 侵攻의 記錄에는 行政區域의 道の 滿洲語는 golo로 나타난다.

te mini beye wang ging de tembi, geren cooha be suweni
 이제 내 自身이 王 京(서울)에 살겠다. 모든 군사 를 너이들의
 jakūn golo de dendefi tebumbi. 滿文老檔 VII. p.1488 (東洋文庫 譯註本)
 八 道 에 나누어 살게하겠다.

solho i tulergi golo i dame jihe cooha be……위책 p.1498.

朝鮮 의 外側(畿外) 道の 援兵하러 온 軍士 를

따라서 여기 jugūn 은, 東南으로 各地에서 南漢山城을 구하러 오는 軍士가 途中 길에서 격파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街路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老檔 十二月 二十五日條에도

wargi amargi jiyangjiyūn⁽¹⁹⁾ se alin holo de jailafi bederecere⁽²⁰⁾
 西 北 將 軍 들 산 골짜 에 피해서 後退하기

go[roki] [ama]si emgeri⁽²⁰⁾
 멀리한 뒤 한번(한걸음)

- IV. oksome⁽²¹⁾ mutehekū: hecen i dorgi jeku geli wajiha :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城 의 안 곡식 또한 다떨어졌다(盡)
- tere fonde amba cooha hecen be gaijarangge šahūrun⁽²²⁾ edun
 그 때에 大 軍士 城 을 爭取하기(는) 찬 바람
- bolori erin i mooī abdaha be sihabure • tuwai
 가을 철 의 나무의 잎 을 떨어뜨리는 것(같고) 불의
- gūrgin de gashai funggala be deijire⁽²³⁾ gese bihe :
 火燄 에 새 의 것털 을 태우는 것 같은(상태에) 있었다.

warkasi alame, duin **goloī** cooha acafi dame jimbi
 Warka 등 告하기를, 四 路의 군사 合하여 援兵하러 온다(고)
 sere jakade,.....sele be da arafi, jidere
 하는 고로,.....Sele를 頭目 삼어서, 오는
jugūn be kame unggihe. 同書 p.1494.
 길 을 包圍하러 보냈다.

同書 p.1501의 solho i tulergi **goloī** cooha가 援兵오는 것을 bata i jidere
jugūn be tosome.....等の 기록도 참고가 된다.

- (19) (F): jiyanggiyun, (O): jiyangjiyun. (F)는 원래 ū와 u는 區別 않고 모두 u로 전사하지만, -ngji-를 -nggi-로 쓰고 있다. 滿文老檔 以來 jiyangjiyūn 이, 淸文鑑, 淸文總彙, 漢淸文鑑 等に 나타나지만 同文類解에서는 「장천 一云 장천」으로 나타나는데 본 비문에는 모두 jiyangjiyūn 이 쓰여있다.
- (20) (O): ? ? emu(?); 1928年 當時 이미 파손되었던 것 같다. 現在 bederecere go— —si emgeri는 확실히 판독된다. 필자의 이 판독도 拓本으로는 go— 以下는 不可能했으며 現地 再調査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옮긴 go— —si 間의 보충부분은 Fraser에 依한 것이다. 그런데 bederecere goroki amasi란 표현 또는 구조는 筆者의 滿洲語 지식으로는 도무지 생소한 표현이다. Fraser는 이 部分을 「retreating far back,」라 번역하고 있다.
- (21) (O): aqsome. oksombi는 여기서는 feliyeme Julesi genembi(漢淸文鑑)의 뜻으로 파악된다.
- (22) (O): sahūrun
- (23) (F): dejire, (O) dejire 현재 파손되어 現地 감정으로도 dejire의 -ji-부분은 판독 불가능이나, 漢文과 蒙文의 뜻을 참고하여 복원함.

* * * enduringge han warakū be dele erdemu
※ 聖 皇帝 죽이지 않는 것을 上 德,

selgiyere be oyonggo⁽²⁴⁾ obufi *** hese wasimbufi ulhibume⁽²⁵⁾:
傳諭하는것을 緊要한 일(로)삼고, 皇旨 내려 깨우쳐 가르쳐,

jihede simbe yooni obure • jiderakū⁽²⁶⁾ ohode
(항복해)온 경우에는 너를 온전케 하리다. (항복해)오지 않을 경우에는

suntebumbi sehe: tereci inggūldai⁽²⁷⁾ mafuta geren
물살시키겠다(고)말하였다. 그로부터 英俄爾岱 馬福塔 諸

jiyangjiyūn⁽²⁸⁾ se
將軍 들(이)

V. enduringge han i hese be alifi amasi Julesi gisureme⁽²⁹⁾ yabure⁽³⁰⁾
聖 皇帝 의 皇旨 를 받고 뒤로 앞으로 전하여 말하러 다니는

(24) (O): ayonggu // ※ 별표는 滿原文中の 間隔表示 (以下 同).

(25) ulhibume 는 ulhibume hendume 로 이해된다.

(26) (O): jidarakū

(27) (F): inggūltei. inggūldai 와 mafuta 는 당시 모두 boigon i jurgan i aliha amban(戶部承政)의 職位에 있었으며 mafuta 는 交易者를 가장한 三百軍士를 이끌고 最先發隊로 侵入한 敵將이었다. 滿文老檔 崇德 元年 十二月條.

(28) (F): jiyanggun. 註(17) 部分에서는 jiyanggiyun 으로 전사하고 있다.

(29) (O): kisureme

(30) (O): yabure (n이 거꾸로 오식된 것이 틀림 없으니 yabure 로 읽은 셈이다) (F): jabure. 現在の 碑文의 狀態는 拓本에서나 現地調査에서나 jabure 로 읽게 되어 있다. 語頭에서 y 와 j 를 區別짓는 위로 뺀 획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語頭 j 의 끝 部分이 좀 굵게 되어 있어서 若干 뻗쳤든 획이 몽그러진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곳은 yabure 가 되어야 할 곳이다. amasi Julesi gisureme jabure jakade (앞으로 뒤로 전하여 말하며 답할때)라 읽고, 主和派의 崔鳴吉 등이 mafuta, inggūldai 등과 往來하며 和平條件을 서로 말하고 답하고 할때 라고 理解해도 될듯 하지만 아무래도 무리이다. 그런데 金芳漢 教授의 助言에 의하면 蒙古語에서는 y 를 表記하는데 語頭에서 j 처럼 쓰는 일이 흔히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 碑文에는 몽고어적인 表記特色이 능후하게 남아 있다. 끝이 몽특하다든가 몽고어에서 y 를 어두에서 j 와 混同해서 흔히 쓴다든가, 그리고 본 비문에 표기가 몽고어적 특색을 그대로 지나고 있는 점이 있다는 건강부희한다고 볼 수 있는 條件을 들어 yabure 로 읽으려는 理由는 amasi Julesi gisureme yabumbi 가

jakade : meni sitahūn ejen bithe coohai geren ambasa be
 고로 우리의 寡 君 文 武의 諸 大臣들 을

isabufi hendume : bi amba gurun i baru⁽³¹⁾ acafi
 모이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大 國 을 向하여 親和하고서

juwan aniya oho : mini farhūn liyeliyehun⁽³²⁾
 十 年 되었다. 나의 어두움(無智蒙昧)(와) 어둑(昏迷)함

de * * * abkai dailara be hūdulabufi⁽³³⁾ tumen halai irgen
 (때문)에 하늘의 征伐 을 서둘게 하여서 萬 姓의 百姓(이)

jobolon tušaha : ere weile mini emhun beye de bi :
 憂患(에) 봉착했다. 이 罪 나의 한 몸 에 있다.

VI. enduringge han nememe wame jenderakū uttu⁽³⁴⁾ ulhibure
 聖 皇帝 도리어 죽이지(를) 차마 못하고 이와같이 깨닫게 하는

bade • bi ai gelhun akū mini dergi mafari doro be
 마당에 내 어찌 두려움 없이 나의 上(至尊) 衆祖(의) 道(社稷) 를

yooni obume • mini fejergi irgen be karmame⁽³⁵⁾ * * * hese
 온전케 하며, 나의 아래 百姓 을 保護하기 위해서 皇旨

거의 成語化한 語句라는 사실 때문이다.

清語摘鈔 中の 摺奏成語(名德堂 光緒 十七年) 十四葉에 「禮節往來」
 doroi jaka de amasi Julesi yabure 란 表現이 있고, 滿文老檔에도 崔尙
 書, 李侍郎 等이 先發隊 mafuta 等を 만나 王이 피신할 여유를 갖도록
 지연작전을 쓰는 중에 南漢으로 피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amasi
 Julesi gisurere be umesi nakaha. ‘뒤로 앞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했다’(서로 議事하는 것을 完全히 中斷했다)는 표현이 나온다(滿文
 老檔 VII. p.1493). 본 비문도 “amasi Julesi gisureme yabure jakade—
 뒤로 앞으로 (皇旨를) 전하여 말하러 다니는 故로”로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Fraser 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Mafuta the Generals
 were conveying backwards and forwards the Bogdo-Khan’s behests and
 answers, then……」

(31) (O): barn(오식)

(32) (F): miyeliyehun, (O): liyaliyehun

(33) (O): hūtulabufi

(34) (O): ujatu

(35) (O): harmame

be alime⁽³⁶⁾ gaijarakū⁽³⁷⁾ sehe manggi: geren
 를 받아 들이지(가지지)않겠는가(하고) 말하고 나니, 諸
 ambasa saišame⁽³⁸⁾ dahafi uthai emu udu juwan
 大臣들 稱揚하며 북중하여, 즉시 한(一) 몇(幾) 十
 muringga⁽³⁹⁾ be gaifi • coohai juleri jifi weile be
 驕 를 取하고(이끌고), 軍士의 앞에 와서 罪 를
 alire jakade
 받으려 할 적에(때),

VII. enduringge han dorolome⁽⁴⁰⁾ gosime kesi i bilume • acame⁽⁴¹⁾
 聖 皇帝 禮를 갖추어 仁愛하며, 恩惠 로써 愛撫하며, 만나면서,
 jakade mujilen niyaman⁽⁴²⁾ be tucibume⁽⁴³⁾ gisurehe : šangname
 즉시 心 腹(심장) 을 털어내 놓고 이야기 했다. 賞내려

(36) (O): aime(?). 現在도 선명한데 (O)는 (?)을 치고 있고 번역도 이상하다.

(37) (O): haijarakū

(38) (O): saisame; 비문에 saišame의 ㅅ의 왼쪽 획이 분명치는 않다.

(39) (F): moringga. 滿洲語 正常의 綴字는 moringga이고 muringga란 끝은 필자가 본 어떤 사전에도 없으나, 동 비문에는 분명한 傍點이 있다.

(40) (O): durolome

(41) jakade는 보통은 반드시 -i(-ni) jakade 또는 -ra(-re,-ro) jakade란 形式으로 쓰인다. 淸文虛字指南編이나 滿漢字淸文啓蒙 卷之三 淸文造語虛字에서도 같은 說明을 하고 있다. 유독, 同文類解의 語錄解에서 「jakade ……上必因 ra等 未然字起之. 間有 -me字接者. 比 ra, re, ro字. 稍緊些. ……」라 하여 jakade 앞에 -me가 오는 경우가 있음을, 그러한 例文 없이, 설명하고 있다. 上原 久氏의 滿文滿洲實錄의 研究에서도 滿洲實錄에 -me jakade란 形式이 있다는 報告가 없다. 그런데 今西春秋 譯稿: 滿和對譯 滿洲實錄 昭和 11年 Print本, 四卷 p.9에는 「……cooha gemu minde olji ombikai seme hendume jakade tungse dung guwe yen……」이란 -me jakade의 形式이 꼭 한例가 나온다. 그러나 같은 대목이 東方學紀要 2 天理大學, 1967,에 실린 (滿文)大清太祖武皇帝實錄 卷二(滿洲實錄 卷四에 해당되는 部分) 六五에는 「……minde olji ombikai seme hendure jakade……」로 -re jakade란 形式으로 나타나 있어서 油印本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me jakade는 아주 희귀한 例이다. (O)는 acame를 「和合」이란 뜻으로 번역하고 있다.

(42) (F): niyamen, niyaman은 父母, 친척 심장, 樹心 등의 뜻인데, mujilen niyaman be tucibume는 「흉금을 털어 놓고」의 뜻이다.

(43) (O): tujibume

buhe *** kesi • dahara ambasa de bireme⁽⁴⁴⁾ isinaha :
 준 恩惠 隨行하는 大臣들 에게 두루 미치었다(到).

dorolome wajiha manggi : uthai meni sitahūn wang be
 禮行 바친 뒤, 즉시 우리들의 寡 君(王) 을

amasi du* hecen de bederebufi⁽⁴⁵⁾ • ilihai andan⁽⁴⁶⁾ de
 뒤로 都城 에 돌아가게 하고, 일어서면서 瞬時間 에 (즉시)

julesi genehe cooha be bargiyafi⁽⁴⁷⁾ wasihūn⁽⁴⁸⁾ bedereme •
 南으로 간 軍士 를 거두고(收), 西로 물러가며

irgen be bilure • usin i weile⁽⁴⁹⁾ be huwekiyebure jakade :
 百姓 을 撫養하고, 田地 의 일 을 勸獎하는 故로,

goroki⁽⁵⁰⁾ hanciki samsiha irgen gemu dasame jifi tehengge
 먼곳 가까운곳(에) 흩어진 百姓 모두 다시(更) 와서 산것

amba kesi wakao⁽⁵¹⁾ :
 大 恩(이) 아닌가?

VIII. ajige⁽⁵²⁾ gurun • *** dergi gurun de weile bahafi⁽⁵³⁾
 小 國 上 國 에 罪 지고서(진지)

goidaha : sohon honin aniya : du⁽⁵⁴⁾ yuwanšuwai⁽⁵⁵⁾ jüyang
 오래되었다. 己 未 年, 都 元帥 姜

(44) (F): birime //

* du 의 u 는 語中字임,

(45) (O): beterebufi

(46) (O): 判讀不明으로 (?)표를 하고 있으나 現在 鮮明함.

(47) (O): barginfi. 현재 若干 파손되어 있어 拓本으로는 읽기 곤란하나 현
 지 조사로 bargiyafi 임이 分明함.

(48) (O): wesihūn (O)는 그러나 번역은 옳게 “西方으로”라고 되어 있음.

(49) (F): weilen

(50) 註(20)의 goroki 의 용법과 비교.

(51) (O): waku

(52) (F): acige

(53) (F): bahkafi 로 오식된것 같음. h=(Fraser 표기 법)kh

(54) 同碑文에 du 와 yuwanšuwai 는 떨어져 있으나 du 의 u 字는 語中字로
 되어 있음.

(55) (O): du yuwansuwai, (F): Du-yuwan šuwai 로 붙은 곳이 떨어져 있음.

hūng li⁽⁵⁶⁾ be takūrafi⁽⁵⁷⁾ ming gurun de cooha aisilame⁽⁵⁸⁾
 弘 立 을 派遣하여 明 國 에 軍士 援助하러

genehengge gidabufi⁽⁵⁹⁾ jafabuha manggi :
 간것 擊破되어 拿捕된 뒤

IX. taidzu⁽⁶⁰⁾ horonggo⁽⁶¹⁾ han damu jiyang hūng li⁽⁶²⁾ jergi udu
 太祖 武 皇帝 다만 姜 弘 立 等 몇

niyalma be bibufi gūwa be gemu amasi bederebuhe :
 사람 을 留置시키고 다른사람 을 모두 뒤로 돌려 보냈다.

*** kesi ereci amban ningge akū : tuttu ocibe ajige
 恩惠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함 에도 小

gurun geli liyeliyefi ulhirakū ogoro jakade : fulahūn
 國 다시 昏迷하여 깨닫지 못 하는 고로 丁

gūlmahūn aniya :
 卯 年

X. enduringge han jiyangjiyūn⁽⁶³⁾ be takūrafi⁽⁶⁴⁾ dergi babe
 聖 皇帝 將軍 을 差遣하여 東쪽 땅을

dailanjaha⁽⁶⁵⁾ manggi : meni gurun i ejen amban gemu
 討伐하러왔을 때에 우리의 나라 의 君主(와) 大臣 모두

(56) (O): jiyanghūngli(부처 전사 했음), (F): Jiang Hung-li로 jiyang이 jiang으로 되었고, h를 Fraser는 kh로 표기함에도 이 人名에서만은 그냥 h를 썼음.

(57) (O): tahūrafi

(58) (F): aisileme

(59) (O): gitabufi

(60) (O): taisu, (F): Dai-dzu; s 右側에 바로 縱線을 근 特殊文字를 쓰고 있다.

(61) (O): horonggu

(62) (O): jiyanhunli (n 위의 점이 없다. 오식인듯), (F): Jiang Hung-li. (註(56) 참조)

(63) (O): jiyangjiyūn, (F): giyanggiyun

(64) (O): tahūrafi

(65) (O): dailahajaha

mederi tun de jailame dosifi elcin takūraf⁽⁶⁶⁾ acaki
 바다 섬 에 避하여 들어가서 使臣(을) 差遣하여 和親하자

seme baiha: *** enduringge han gisun be gaifi ahūn
 고 請했다. 聖 皇帝(는) 말 을 取하여 兄

deo⁽⁶⁷⁾ i gurun obufi: ba na⁽⁶⁸⁾ be yooni obuha: jiyang
 弟 의 나라 되게하고, 땅 地方(疆土)를 은전케 하였다. 姜

hūng li⁽⁶⁹⁾ be nememe amasi⁽⁷⁰⁾ bederebuhe⁽⁷¹⁾: ereci amasi
 弘 立 을 도리어 뒤로 되돌려 보냈다. 이로부터 뒤에

dorolohongge ebereke akū: elcin takūrahangge lakcaha⁽⁷²⁾
 行禮 소홀함이 없었다. 使臣 보내는 일 끊이지

akū bihe: kesi akū oilori hebe
 앓고 있었다. 恩惠 없이 (불행히) 輕忽한 議論(이)

XI. dekdefi⁽⁷³⁾ facuhūn i tangkan⁽⁷⁴⁾ baninafi⁽⁷⁵⁾: ajige gurun
 떠올라서 紛糾 의 階梯(가) 이루어져, 小 國

(66) (O): tahūrafi

(67) (O): deu

(68) ba; uheri gisurere de na sembi. na be faksalame jorime gisurembihede
 ba sembi. (韓)漢清文鑑.

(69) (F): Jiang Hung-li (註(56) 참조), (O): jiyanhūnli

(70) nememe amasi 部分은 현재 많이 파손되어 있으나, 현지조사로 판독
 가능.

(71) (O): be yerebuhe; nememe amasi bederebuhe 部分의 (O)의 번역은 全
 的으로 漢文에 의존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72) (O): laqcaha 남성모음들 사이의 子音앞에서는 k 를 q 로 전사하고 있다.

(73) (O): dakdefi

(74) (O): tanghan

(75) 今西春秋: (實錄內譯出) 舊清語譯解, 東方學紀要 3 天理大學 1969, p. 26
 5, No. 779 「angga de gisun baninarakū, ere baninarakū serengge,
 uthai banjinarakū sere gisun de adali, fe gisun de, angga de gisun
 baninarakū seme gisurembi.」 또 清文總彙 卷四 四十 banjinarakū 條에
 「……如成話等成即 舊之 banjinaffi.」 따라서 필자는 「이루어져」라 번
 역 했음. 大清全書 (三義堂藏板, 1713)에도 banjinaffi 의 풀만이 나
 타남.

(76) (O): jejen

jecen⁽⁷⁶⁾ i ambasa de gocishūn akū gisun i bithe
 邊疆 의 大臣들 에게 謙遜하지 못한(무례한) 말 로 글

arafi unggihe : tere bithe be elcin jihe ambasa bahafi
 써서 보냈다. 그 글 을, 使臣(으로) 은 大臣들(이) 入手하여

gamaha⁽⁷⁷⁾ : *** enduringge han hono oncoi gamame⁽⁷⁸⁾
 가지고 갔다. 聖 皇帝 오히려 관대히, 가지고 가면서

uthai⁽⁷⁹⁾ cooha jihēkū⁽⁸⁰⁾ : neneme *** genggiyen hese be
 죽시 軍士 오지아니했다. 먼저 明 旨 를

wasimbume coohalara erin be⁽⁸¹⁾ boljome dahūn dahūn i
 내려 出兵할 때 를 미리約定하여 거듭 거듭 하여

(77) 滿文老檔 崇德 元年 十一月 二十九日條 出征에 앞서 朝鮮國에 낸 長文의 聲明속에 이 대목에 관한 자세한 淸國側의 記錄이 있다.

「……mini elcin takūraha ambasa be wang de acaburakū, mini unggihe bithe be tuwarakū ogoro jakade, mini ambasa suweni gurun i gūwaliyaka be serefi, bedereme jidere de, suweni wang ni hesei bithe, ping an doo i guwan ca ši hūng de unggire be, mini ambasa bahafi gajihā, tere bithei gisun, meni baru gūlmahūn aniya acahangge taka tookabume acaha, te umesi lashalame ehe oho, jase furdan de bekile, baturu mangga sabe huwekiyebu, bodohonggo mergese be isabu seme arahabi, tereci gūwa weile ya be hendure, enteke weile i turgunde, bi jurgan i cooha iliha,……」

「나의 使者로 보낸 大臣들을 王에게 만나지 못하게 하고, 나의 보낸 글을 보지 않으려하는 故로, 우리의 大臣等(은) 너이들의 나라의 變心한 것을 깨닫고, 되돌아 올때, 너이들의 王의 旨의 書, 平安道の 觀察使 洪에게 보내는 것을, 나의 大臣들이 얻어 가지고 왔다. 그 글의 말, “우리의 쪽에(淸國에) 卯年 和親한 것 잠시 지연시키기 위하여 和親했던 것이다. 이제 심히 斷絶되어 (사이가) 惡化되었다. 邊關을 굳게 지켜라. 용맹하고 험센자들을 鼓舞하라. 智謀있는 者들을 모아라,”라고 써 있었다. 그것 以外の 일 무엇을 말하라. 이같은 일의 연유로 내 正義의 兵을 이르켰다.」 滿文老檔 VII 東洋文庫 譯註本, pp.1475—6.

(78) (O)는 잘못 번역하고 있다. (F)의 번역은 「The August Emperor still took this magnanimously; his army did not come at once,」

(79) (O): othai

(80) (F): jikhaku (Fraser 표기 그대로 읽) jehekū의 e가 a로 되어 있음.

(81) 현재 약간 파손되어 있음. 판독가능.

ulhibuhengge⁽⁸²⁾ šan be jafafi tacihiyara ci hono dabali⁽⁸³⁾
 깨우쳐 준 것 귀 를 잡고 教訓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한

kai: tuttu ocibe geli urgunjeme
 것이다. 그리 함에도 또 기꺼이

XII. dahahakūngge⁽⁸⁴⁾ ajige gurun i geren ambasai weile ele
 服從하지 않은 것 小 國 의 諸 大臣들의 罪 더욱
 guweci ojurakū oho: *** enduringge han i amba
 면치 못하게 되었다. 聖 皇帝 의 大

cooha nan han be kafi⁽⁸⁵⁾ geli *** hese
 軍 南 漢 을 包圍하고 또 皇旨

wasimbufi • neneme emu⁽⁸⁶⁾ garhan⁽⁸⁷⁾ i cooha
 내려 먼저 — 支(隊) 의 軍士

unggifi • giyang⁽⁸⁸⁾ du be⁽⁸⁹⁾ gaifi • wang ni juse sargan •
 보내어 江 都 를 取하고, 王 의 諸子, 妃(妻)

ambasai⁽⁹⁰⁾ hehe juse gemu jafabuha manggi :
 大臣들의 婦人 자식들 모두 拿捕케한 뒤

XIII. enduringge han geren jiyangjiyūn⁽⁹¹⁾ be ume necire
 聖 皇帝 諸 將軍 을(에게), “犯하지 마라

nungnere⁽⁹²⁾ seme fafulafi • meni hafasa⁽⁹³⁾ taigiyasa⁽⁹⁴⁾ be
 侵害하지 마라” 고 戒告하고, 우리의 官員들 大監들 을

(82) (F): ulhibuhangge (O): olhibuhengge; l의 위쪽部分이 u의 圈點과 붙어 있음.

(83) (O): debali

(84) (O): tahakūngge

(85) (O): gafi

(86) (O): emn (오식)

(87) (F): gargan, (O): garaha

(88) (F): Giang, (O): giyan

(89) (O): de

(90) (O): ambasi

(91) (F): jiyanggiyun, (O): jiyangjiyūn (오식)

(92) (F): nonggere, (O): ungnere. (F)(O)는 전사가 틀렸을 뿐 아니라, 해석도 옳지 않다. ume necire nungnere는 ume necire와 ume nungnere가 습해진 말이다. (F)의 번역: the Divine Khan(ordered) his Generals, “molest(them) not!” with warning words he restrained them.

tuwakiyabuha : tuttu amba kesi be isibure
 看守시켰다(王子妃 등을). 그와 같은 大 恩 을 미치게 하는(到)

jakade : ajige gurun i ejen amban jafabuha juse sargan
 고로, 小 國 의 君主, 大臣, 拿捕된 아이들, 婦人

gemu fe an i ofi • gecen nimanggi kūbulifi⁽⁹⁵⁾ niyengniyeri
 모두 舊 常例 대로 되니, 霜 雪 變하여 봄(이)

oho⁽⁹⁶⁾ : olhon hiya forgošofi erin i⁽⁹⁷⁾ aga oho gese :
 되고, 乾燥한 가뭄(이) 轉하여 때(에) 맞는 비(가) 된것 같았다.

ajige gurun i gukuhe be dasame bibuhe : mafari
 小 國 의 滅亡했던 것 을 改修하여 存續케했다. 衆祖

doro lakcaha⁽⁹⁸⁾ be dahūme
 道(社稷) 斷絶된 것 을 다시

XIV. siraha : dergi bai šurdeme ududu minggan bai niyalma
 承繼하였다. 동쪽 땅의 주위 數 千 里의 사람

gemu banjibuha hūwašabuha⁽⁹⁹⁾ *** kesi de horibuha :
 모두 살게하고 잘되게한 恩惠 에 둘러싸였다.

ere⁽¹⁰⁰⁾ yargiyan i julgei kooli⁽¹⁰¹⁾ de sabuhakūngge
 이것(은) 진실 로 옛날의 法例 에서 보지 못했던 것

kai : han sui mukei⁽¹⁰²⁾ wesihun san tiyen⁽¹⁰³⁾ du bai
 이다. 漢 水 물의 위쪽(上流) 三 田 渡 땅의

(93) (O): hawasa

(94) 漢文에는 「令從官及內侍看護」

(95) (F): kubulufi, (O): hūbulifi

(96) niyengniyeri oho (gese)……aga oho gese 로 연결된다.

(97) (F): erin aga 로 i 가 누락됨.

(98) (O): maqcaha

(99) (O): huwašabuha

(100) (F): ere 가 누락되었음.

(101) (O): hooli

(102) (O): mokei, 拓本으로는 mugei 처럼 k 옆에 圈點이 나타나나, 現地調査 로 파손된 部分임이 확인됨.

(103) (O): tiyan

julergi uthai *** enduringge han i isinjiha ba :
 남쪽(이) 곧 聖 皇帝 의 到來한 땅(이다)

tan soorin bi: meni sitahūn ejen jurgan i niyalma
 壇 位(가) 있다. 우리의 寡 君 部員(役事部) 의 사람

de hendufi tan soorin be nonggime den amban
 에게 말하여 壇 位 를 增添하여 높이 크게

badarabufi⁽¹⁰⁴⁾ geli wehe be gajifi⁽¹⁰⁵⁾
 확장시키고 또 돌 을 가져와서

XV. bei ilibufi⁽¹⁰⁶⁾ enteheme bibume *** enduringge han i
 碑 세워서 永久히 存續케 하더 聖 皇帝 의

gung⁽¹⁰⁷⁾ erdemu be *** abka na i sasa okini seme
 功 德 을 하늘 땅 과 함께 하고 싶노라 고

temgetulehe: ere meni⁽¹⁰⁸⁾ ajige gurun⁽¹⁰⁹⁾ i teile⁽¹¹⁰⁾ jalan
 旌表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小 國 만 代

halame enteheme akdafi⁽¹¹¹⁾ banjire anggala .
 바꾸며(子孫代代로) 永久히 信賴하고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amba gurun i gosin algin⁽¹¹²⁾ . horon⁽¹¹³⁾ i yabun
 大 國 의 어진 명성 武威 의 行止(德行之行)

(104) (F): bederebufi. bederebumbi는 쯤허 다른 뜻인데도 그의 번역은 badarabumbi의 뜻으로 옳게 번역되어 있다. 漢文에 의존한 것인 듯하다. 이곳은 若干 파손되어 있으나 분명히 판독된다. 滿洲語 諸 辭書에 등재된 풀은 badarambumbi인데 이 비문에는 badarabumbi로서 badarabufi로 m이 없음.

(105) gaifi(?), 번역도 gaifi의 번역으로 하고 있다.

(106) (F): ilibufu

(107) (F): kung

(108) (F): mini

(109) (F): gurun

(110) (O): taile

(111) (O): aqdafi

(112) (O): mangin

(113) (O): goron(?)

de goroki ci aname gemu daharangge inu
에 먼곳 으로부터 밀어(推) 모두 服從하는 것 또한

ereci deribumbi kai: udu abka na i amban be araha.
이로부터 始作되는 것이다. 비록 天 地 의 攄 을 攄로짓고,

šun biya i genggiyen be niruha seme terei tumen de
日 月 의 攄 음 을 攄했다 해도, 그것의 萬 이

emken⁽¹¹⁴⁾ inu duibuleci⁽¹¹⁵⁾
→ 도 比較되지

XVI. ojurakū⁽¹¹⁶⁾: heni⁽¹¹⁷⁾ muwašame⁽¹¹⁸⁾ folome temgetulerengge ***
못하리라. 조금, 粗雜하게 지어 새겨 旌表하는 것이다.

abka gecen silenggi be wasimbufi fundehun
하늘(은) 서리 이슬 을 내리어 (萬物을)荒涼하게

obumbi banjibumbi⁽¹¹⁹⁾: *** enduringge han ede
하고(하기도 하고) 살아나게 하기도 한다. 聖 皇帝 이에

acabume horon erdemu be sasa selgiyembi⁽¹²⁰⁾:
마추어(본받아) 武(와) 德 을 함께 傳令한다.

XVII. enduringge han dergi babe dailaha⁽¹²¹⁾ juwan tumen cooha
聖 皇帝 東쪽 땅을 征伐한 十 萬 軍士

kunggur⁽¹²²⁾ seme geren tasha pi gurgu i gese⁽¹²³⁾: wargi
우투루 하나 많았고, 虎 豹 獸 와 같았다. 西

(114) (O): emu(?)

(115) (O): duibolaci

(116) (O): ojuraku

(117) (O): heno

(118) (F): muwašime

(119) (F)는 abka 부터 banjimbi 까지를 全히 달리 번역하고 있다. 「Heaven makes frosty dew descend, causes cloudy gloom and makes things be produced.」 gecen silenggi 를 frosty dew 라 번역하고 있다.

(120) (O): selgiyame

(121) (O): tailaha

(122) (F): kungur, (O): kunguri(?). 본 碑文의 語末의 r 字는 蒙古語에서 사용되는 文字를 사용하고 있다. 滿洲語 語末 r 은 ㄹ인데 ㄹ기지는 ㄹ

amargi gurun gemu agūra⁽¹²⁴⁾ be jafafi⁽¹²⁵⁾ juleri ojoro be
北 國 모두 豹尾鎗 을 잡고 앞장 될것 을

temšerengge horon ambula gelcuke⁽¹²⁶⁾ kai: *** enduringge
다투는 것 (그)武威 매우 두려웠다. 聖

han umesi gosin ofi gosime wasimbuha hese gisun •
皇帝 매우 仁慈하여서 어엿비여겨 내린 勅 言,

juwan jurgan i wasimbuha bithe horonggo⁽¹²⁷⁾ bime
十 行 의 下 書 威嚴(이) 있으며

hūwaliyasun : dade liyeliyefi⁽¹²⁸⁾ sarkū⁽¹²⁹⁾ ofi beye jobolon be
부드러웠다. 본디 憚迷하여, 아지 못하여 스스로 禍 를

baiha :
求했다.

XVIII. enduringge han i genggiyen hese isinjire jakade • amhafi teni
聖 皇帝 의 明 旨 到來하 니, 자고서 받급

getehe gese⁽¹³⁰⁾: meni wang gaifi dahahangge⁽¹³¹⁾ horon
깨난 것 같았다. 우리의 王(이) 取하여 降服한 것(은) 威勢

de gelere teile waka: erdemu de dahahangge kai:
에 두려워 한 것 단이 아니다. 德 에 다라간 것 이다.

고어 語末文字인 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興味있는 사실이다. kunggur
는 몽고어에서도 künggür이다(五體清文鑑 및 Manju Mongol Toli Bičig,
1968). kunggur=geren niyalmai sujere jilgan 衆人跑聲 또는 衆馬走聲.

(123) 漢文은 「如虎如豹」〈書經〉

(124) 一般的으로 道具, 兵器(agūra hajun)란 뜻으로 쓰임.

(125) (O): jawafi

(126) (F): gelecuke. 이 gelecuke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울은 풀이나,
본 비문은 gelcuke로 되어 있음.

(127) (O): horonggu

(128) (O): liyaliyefi

(129) (F): sarakū

(130) (O): gece

(131) (O): dahahange (오식)

*** enduringge han gosifi kesi isibume dorolome
 聖 皇帝 어엿비어겨 恩惠 미치게하며 禮를 갖추며

sain⁽¹³²⁾ cira injere arbun i agūra be bargiyafi⁽¹³³⁾ sain⁽¹³⁴⁾
 좋은 얼굴 웃는 모습 으로 豹尾鎗 을 거두고, 훌륭한

morin weihuken dahū šangnara⁽¹³⁵⁾ jakade hecen i haha
 말 가벼운 皮端罩 賞내릴 적에 城 의 男

hehe uculeme maktarangge⁽¹³⁶⁾: meni wang ni bahafi
 女 노래하며 稱揚한 것, 우리의 王 의 언어

bederehengge *** enduringge han i
 들이 온것(돌아올 수 있었던 것), 聖 皇帝 의(가)

buhengge kai:
 준 것 이다.

XIX. enduringge han meni irgen be⁽¹³⁷⁾ banjikini seme cooha be
 聖 皇帝 우리의 百姓 을 살리자 고 軍士 를

bederebuhe⁽¹³⁸⁾: meni facuhūn oho samsiha be gosime.
 철수시켰다. 우리의 紊亂하게 되고 流散된 것 을 가련히 여겨

meni usin i weile be huwekiyebuhe: efujehe⁽¹³⁹⁾ gurun da⁽¹⁴⁰⁾
 우리의 田地 의 일 을 勸獎했다. 敗壞된 나라 옛

an i ohongge⁽¹⁴¹⁾ ere ice tan⁽¹⁴²⁾ i turgun kai: olhoho
 그대로 된 것 (이) 이 세 壇 의 緣故 이다. 마른

(132) (F): sayin; (F)는 Tangu Meyen의 다른 곳에서는 sain이라 전사했음.

(133) (O): bargirafi

(134) (F): sayin

(135) (F): dahū sangnara, (O): dahušangnara. dahū란 禮服에 맞추어 입는 狐, 貂, 猞猁 등의 毛皮를 사용한 가죽옷. 비문엔 dahū와 šangnara가 거이 붙어 있지만 dahū의 ū가 語末字임.

(136) (O): maqtarangge (O)에서는 男性母音 뒤 子音앞의 것은 q로 전사하고 있다.

(137) (O): be가 누락되었음.

(138) (O): hederebuhe

(139) (F): efunjehe

(140) (O): de

(141) (O): ohonge (오식)

giranggi de dasame yali banjibuha : tuweri orho i fulehe
 뼈 에 다시 살(이) 蘇生케 하고, 겨울 풀 의 뿌리

geli niyengniyeri erin be ucaraha gese oho : amba giyang
 다시 봄 철 을 만난 것 같이 되었다. 큰 江

ni da jakade den amba wehe ilibufi san han i ba tumen
 의 머리 곁에 높고 큰 돌 세워서 三 韓 의 땅 萬

aniya ojongge *** enduringge han i sain de kai ∴
 歲(이어가게) 되는 것 聖 皇帝 의 어진덕 에 의한 것이다.

XX. wesihun erdemunggei duici aniya jorhon⁽¹⁴³⁾ biyai ice⁽¹⁴⁴⁾
 崇 德의 第四 年 十二 月の 初

jakūn⁽¹⁴⁵⁾ de ilibuha ∴
 八(日) 에 세웠다.

※ 滿文으로 된 보통 勅命이나, 다른 비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enduringge han, hese, kesi 등의 말이 나올때, 行이 바뀔때는 단을 높이지만 行속에 들어갈 때는 위 낱말과 사이를 떼는데, 본문속의 *** 표는 滿原文의 이러한 간격을 표시한 것임.

(142) (O)는 tan 의 해석을 ? 표를 하고 保留했다.

(143) (F): jorgon

(144) (O): icen

(145) (O): jakun

三

滿文 意譯

大清國 聖皇帝의 功德碑

I. 大清國 聖皇帝의 功德碑

II. 大清國 崇德 元年 (仁祖 十四年 丙子, 1636年) 冬 十二月에

III. 어질고 너그럽고 그리고 온화한 聖皇帝는 和平을 켜 것이 우리로 부터 始作되었다고 크게 성을 내어 威嚴있는 軍士를 이끌고 來臨하여 동 녁을 向하여 불 붙듯이 와도 아무도 두려워서 對항하지 못하였다. 그때 에 우리의 寡君은 南漢에 자리를 定하고 두렵고 겁이나서 春氷을 밟고 날 밝기를 기다리는 것 처럼 지내기 五十日째에 東南 諸道의 우리 軍士 들은 續續 擊破되었다. 西北方의 將軍들은 산 골짜기에 避해서 멀리 後退 한 뒤에 한겨름도

IV. 앞으로 進擊하지 못하였다. 城內의 糧穀도 또한 다 떨어졌다. 그 때 淸의 大軍이 城을 奪取하기란, 찬 바람에 가을 나무잎을 떨어뜨리는 일 같이, 화염에 새털을 태우는 일 처럼 쉬운 일이었다. 聖皇帝는 殺生 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德으로 여기고 傳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 皇旨를 내려 깨우쳐 이르기를, “降服해 오는 경우에는 너 를 예대로 온전케 하리라. 降服해 오지 않을 경우에는 破滅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그로 부터 英俄爾岱 馬福塔 等 諸 將軍들이

V. 聖皇帝의 皇旨를 받고서 旨를 傳하러 使行往來하매, 우리의 寡君 은 文武 諸大臣을 召集하고 이르기를, “내가 大國을 向하여 和親을 맺 은지 十年이 되었다. 내가 두지하고 어둡해서 하늘의 征伐을 서둘게 하여 萬姓의 百姓이 憂患에 逢着하게 되었다. 이 罪는 나의 一身에 있는 것이다.

VI. 그런데도 聖皇帝는 도리어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이와 같이 깨우쳐 주는 터에 내 어찌 감히, 내 至尊 祖上들의 道(社稷)를 온전케 하며 내아래 百姓을 保護하기 위해 皇旨를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니, 諸 大臣이 稱揚하며 이에 服從하여, 즉시 王은 數十騎를 이끌고 淸軍 앞에 와서 罪를 받으려할 적에,

VII. 聖皇帝 禮를 갖추고 仁慈하게 대하며, 恩惠를 베풀어 撫養하며, 만나자 즉시 ทองคำ를 털어내놓고 이야기 했다. 賞내려준 恩惠가 隨行한 大臣들에게 두루 미치었다. 禮行을 마친 뒤에 즉시 우리들의 寡君을 都城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지체지 않고 즉시 南으로 간 軍士를 철수하여 西로 물러가며, 百姓을 撫養하고 農事를 勸獎하는 故로, 遠近에 흩어졌던 百姓이 모두 다시 와서 산 것은 큰 恩惠가 아닌가?

VIII. 小國이 上國에 罪 지은지 오래되었다. 己未年(光海君 11年, 淸太祖 天命 4年, 1619年) 都元帥 姜 弘立을 派遣하여 明나라에 援兵간 것이 擊破되어 拿捕된 뒤,

IX. 淸太祖 武皇帝는 다만 姜 弘立 等 몇 사람만을 留置시키고 모두 되돌려 보냈다. 이 보다 더 큰 恩惠가 없다. 그러함에도 小國은 다시 悞迷하여 깨닫지 못하는 故로 丁卯年에 (仁祖 五年, 淸太宗 天聰 元年 1627年),

X. 聖皇帝가 將軍을 派遣하여 東쪽 땅을 征伐하러 왔을 때, 우리나라의 君主, 大臣은 모두 바다 섬에 避하여 들어가서, 使臣을 보내어 和親하자고 請했다. 聖皇帝는 이 請言을 받아들여, 兄弟의 나라가 되게 하고, 疆土를 예대로 온전케했다. 도리어 姜 弘立을 되돌려 보냈다. 이 일이 있는 뒤 行禮가 소홀함이 없었다. 使臣을 派遣하는 일이 끊임없이 있었다. 不幸히 輕忽한 議論이

XI. 일어나 紛糾의 階梯가 이루어져서, 小國은 邊疆의 大官들에게 淸國에게 不遜한 말로 글을 써 보냈다. 그 글을 淸國에서 朝鮮으로 使臣

으로 왔던 大臣들이 入手하여 가지고 갔다. 聖皇帝는 오히려 관대하게도 그 글을 大臣들이 가지고 가자마자 軍士를 보내오지 않고 우선 明旨를 내려 出兵할 때를 미리 約定하면서 거듭하여 일깨워 준 것은 귀를 잡고 가르쳐 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더한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또 기꺼이

XII. 服從하지 않은 것, 그 罪 小國의 大臣들이 더욱 覓치 못하게 되었다. 聖皇帝의 大軍은 南漢을 包圍하고 또 皇旨를 내려, 먼저 一支隊의 軍士를 보내어 江都를 奪取하고, 王子들, 王妃, 大臣들의 妻子들을 모두 拿捕케한 뒤

XIII. 聖皇帝는 諸 將軍에게, “犯하지 마라, 侵害하지 마라”고 戒告하고, 우리의 官員들과 大監들을 시켜 그 들을 看守케 했다. 그와 같은 큰 恩惠를 베푸는 고로, 小國의 君主, 大臣, 拿捕되었든 아이들, 婦人들 모두 전 그대로 복귀 하니, 霜雪이 變하여 봄이 된듯 하고, 乾燥한 가뭄이 轉하여 때에 맞는 비가 된 것 같았다. 小國이 滅亡했던 것을 다시 고쳐 存續하게 했다. 衆祖의 社稷이 斷絶되었던 것을 다시

XIV. 承繼 했다. 東쪽 땅 數 千里의 사람이, 모두 살게하고 잘되게 한 恩惠를 두루 받았다. 이러한 일은 진실로, 옛날의 法例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漢水의 上流 三田渡의 南쪽이 곧 聖皇帝가 來臨했던 곳이다. 그 곳에 壇位가 있다. 우리의 寡君은 役事部의 사람에게 일러서 壇位를 增添하여 (더하여) 높고 크게 확장시키고 또 돌을 가져와서

XV. 碑를 세워서 永久히 存續케하며 聖皇帝의 功德을 天地와 함께 하고 싶노라고 旌表하였다. 이것은 (碑를 세우는것) 우리 小國만이 代代孫孫 永久히 信賴하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大國의 어진 名聲과 武威의 行止를 먼 곳으로 부터 떠 받들어 모두가 복종하는것도 또한 이로부터 始作되는 것이다. 비록 하늘과 땅의 큼을 글로 짓고, 해와 달의 밝음을 그렸다해도 그(功德의) 萬에 一에도 比較되지

XVI. 못할 것이다. 조금, 粗雜하게 지어 새겨 旌表하는 것이다. 하늘

은 서리 와 이슬을 내려 萬物을 荒涼하게 하기도하고 살아나게 하기도 한다. 聖皇帝 이를 본받아 武와 德을 함께 고루 傳습한다.

XVII. 聖皇帝 東쪽 땅을 征伐한 十萬 軍士 우글 우글하게 그 數가 많았고, 如虎 如貔 용맹스러웠다. 西北國들이 모두 병기를 손에 잡고, 앞장 서려고 다투는데 그 威勢가 매우 두려웠다. 聖皇帝 매우 仁慈하여서 어엿비여겨 내린 勅言, 十行의 下書는 威嚴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웠다. 본디 慳迷하여 아지 못한 연고로 스스로 禍를 얻었다.

XVIII. 聖皇帝의 明旨가 到來하니, 잠을 자다가 딱 깨어난듯 했다. 우리의 王이 降服을 擇한 것은 그 威勢를 두려워한 때문만이 아니라, 그 德에 服從한 것이다. 聖皇帝가 어엿비여겨 恩惠를 미치게 하며, 禮를 가추며, 좋은 얼굴 웃는 모습으로 兵器를 거두고, 훌륭한 말(馬)과 皮端罩를 賞내릴 적에 城의 男女들이 노래하며 稱揚한 것이나, 우리의 王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聖皇帝가 내린 恩德인 것이다.

XIX. 聖皇帝는 우리의 百姓을 살리려고 軍士를 철수 시켰다. 우리가 紊亂하게 되고 流散된 것을 가련히 여겨 農事를 권장했다. 敗하여 부서진 이 나라가 옛 그대로 복귀된 것, 이것이 이 새 壇을 세우게된 緣故인 것이다. 마른 뼈에 다시 살이 蘇生케하고, 겨울 풀의 뿌리가 다시 봄철을 만난 것 같이 되었다. 큰 江의 머리 곁에 높고 큰 비석을 세우고 三韓의 땅이 萬歲 이어가게 되는 것, 이것은 聖皇帝의 어진 德에 의한 것이다.

XX. 崇德 四年 十二月 初八日에 세웠다.

四

大清皇帝功德碑滿文語彙索引

※ 數字는 碑文의 行 表示. ‘제’는 碑題. 괄호내 數字는 같은 行에서 반복된 數를 表示. ※ 語彙數 435(편의상 분리되어 쓰인 것은 모두 한 어휘로 간주 했음). 滿文碑文에 使用한 總語彙數 944 (반복어휘 포함).

abdaha	4	amhafi	18	17(3), 18, 19(5)	
abka	15(2), 16	an	13, 19	bederebufi	7
abkai	5	aname	15	bederebuhe	9, 10, 19
acabume	16	andan	7	bederecere	3
acafi	5	anggala	15	bederehengge	18
acaha	3	aniya	2, 5, 8, 9, 19, 20	bedereme	7
acaki	10	arafu	11	bei	제, 1, 15
acame	7	araha	15	beye	5, 17
aga	13	arbun	18	bi	5(2), 6, 14
agūra	17, 18			bibufi	9
ahūn	10	ba	10, 14, 19	bibuhe	13
ai	6	babe	10, 17	bibume	15(2)
aisilame	8	badarabufi	14	bihe	4, 10
ajige	8, 9, 11, 12 13(2), 15(2)	bade	6	bilume	7
akū	6, 9, 10(3), 11	bahafi	8, 11, 18	bilure	7
algin	15	bai	14(3)	bime	17
alifi	5	baiha	10, 17	bireme	7
alihakū	3	baninafi	11	bithe	5, 11(2), 17
alime	6	banjibuha	14, 19	biya	2, 15
alin	3	banjibumbi	16	biyai	20
alire	6	banjifi	3	boljome	11
aliyara	3	banjikini	19	bolori	4
amargi	3, 17	banjire	15	buhe	7
amasi	3, 5, 7, 9, 10(2)	bargiyafi	7, 18	buhengge	18
amba	4, 5, 7, 12 13, 15, 19(2)	baru	3, 5		
amban	9, 10, 13, 14, 15	be	3(2), 4(5), 5(3) 6(5), 7(5), 8 9(2), 10(4) 11(4), 12(2) 13(5), 14(2) 15(3), 16(2)	ci	3, 11, 15
ambasa	5, 6, 7, 11(2)			cing	3
ambasai	12(2)			cira	18
ambula	3, 17			cooha	3, 4, 7, 8, 11 12(2), 17, 19
				coohai	3, 5, 6

- coohalara11
 da19(2)
 dabali11
 dade17
 dahafi6
 dahahakūngge12
 dahahangge18(2)
 dahara7
 daharangge15
 dahū18
 dahūme13
 dahūn11(2)
 daicing제, 1, 2
 dailaha17
 dailanjīha10
 dailara5
 damu9
 dasame7, 13, 19
 de2, 3(3), 4, 5(2)
 7(3), 8(2), 10
 11, 14(3), 15(2)
 18(2), 19(2), 20
 deijire4
 dekdefi11
 dele4
 den14, 19
 deo10
 dergi3(2), 6, 8
 10, 14, 17
 deribuhe3
 deribumbi15
 dorgi4
 doro6, 13
 dorolohongge10
 dorolome7(2), 18
 dosifi10
 du12, 14
 du (hecen)7
 du (yuwanšuwai)8
 duibuleci15
 duici20
 ebereke10
 ede16
 edun4
 efujehe19
 efulehengge3
 ejen3, 5, 10, 13, 14
 elcin10(2), 11
 ele12
 emgeri3
 emhun5
 emken15
 emu6, 12
 enduringge제, 1, 3, 4, 5
 6, 7, 10(2)
 11, 12, 13
 14, 15, 16
 17(2), 18(3)
 19(2)
 enggelenjifi3
 enteheme15(2)
 erdemu4, 15, 16, 18
 erdemui제, 1
 erdemunggei2, 20
 ere5, 14, 15, 19
 ereci9, 10, 15
 erin4, 11, 13, 19
 facuhūn11, 19
 fafulafi13
 farhūn5
 fe13
 fehufi3
 fejergi6
 folome16
 fonde3, 4
 forgošofi13
 fulahūn9
 fulehe19
 fundehun16
 funggala4
 gaiifi6, 10, 12, 18
 gaijarangge4
 gaijarkū6
 gajifi14
 gamaha11
 gamame11
 garhan12
 gashai4
 gecen13, 16
 gelcuke17
 geleme3(2)
 gelere18
 gelhun6
 geli4, 9, 11, 12, 14, 19
 gemu7, 9, 10, 12, 13
 14, 15, 17
 genehe7
 genhengge8
 genggiyen11, 15, 18
 geren3, 4, 5, 6, 12
 13, 17
 gerendere3
 gese3, 4, 13, 17
 18, 19
 getehe18
 gidabufi8
 gidabuha3
 giranggi19
 gisun10, 11, 17
 gisurehe7
 gisureme5
 giyang12, 19
 gocishūn11
 goidaha8
 goroki3, 7, 15
 gosifi18
 gosime7, 17, 19
 gosin3, 15, 17

gukuhe13
 güng제
 gung1, 15
 gurgu17
 gurun제, 1(2), 5
 8(3), 9, 10(2)
 11, 12, 13(2)
 15(2), 17, 19
 guweci12
 gūlmahūn.....9
 gūrgin4
 gūwa9

 hafasa13
 haḥa18
 halai5
 halame15
 han제, 1, 3(2), 4, 5
 6, 7, 9, 10(2)11
 12(2), 13, 14
 15, 16, 17(2)
 18(3), 19(3)
 han (sui)14
 hanciki7
 hebe.....10
 hecen.....4(2), 7, 18
 hehe12, 18
 hendufi14
 hendume5
 heni16
 hese4, 5, 6, 11, 12
 17, 18
 hiya13
 holo3
 honin.....8
 hono11(2)
 horibuha.....14
 horon ...3, 15, 16, 17, 18
 horonggo9, 17
 huwekiyebuhe19
 huwekiyebure7

hūdalabufi.....5
 hūng8, 9, 10
 hūwaliyasun3, 17
 hūwašabuha14

 i.....제 (2), 1(2), 2, 3(2)
 4(2), 5(2), 7(2)
 10(2), 11(4), 12(3)
 13(4), 14(3), 15(7)
 17(2), 18(4), 19(6)
 ice19, 20
 ilibufi.....15, 19
 ilibuha.....20
 ilihai7
 inenggi3
 inggūldai4
 injere18
 inu.....15(2)
 irgen6, 7(2), 19
 isabufi5
 isibume18
 isibure.....13
 isinaha7
 isinjīha14
 isinjire.....18

 jabure5
 jafabuha8, 12, 13
 jafafi11, 17
 jailafi3
 jailame10
 jakade5, 6, 7(2), 9
 13, 18(2), 19
 jakūn20
 jalan15
 jecen11
 jeku4
 jenderakū6
 jergi9
 jici3
 jiderakū.....4

jifi6, 7
 jihe11
 jihede4
 jīhekū11
 jili3
 jiyang (lūng li)8
 9, 10
 jiyangjiyūn ...3, 4, 10, 13
 jobolon5, 17
 jorhon.....2, 20
 jugūn.....3
 juhe3
 julergi.....3, 14
 juleri6, 17
 Julesi5, 7
 julgei14
 jurgan14, 17
 juse12(2), 13
 juwan..... 5, 6, 17(2)

 kafi12
 kai11, 14, 15, 17
 18(2), 19(2)
 kesi7(3), 9, 10, 13
 14, 18
 kooli14
 kunggur17
 kūbulifi13

 lakcaha10, 13
 li8, 9, 10
 liyeliyefi9, 17
 liyeliyechun5

 mafari6, 13
 mafuta4
 maktarangge18
 manggi6, 7, 8
 10, 12
 mederi.....10
 menci3

meni …3, 5, 7, 10, 13, 14
 15, 18(2), 19(3)
 ming ……………8
 minggan ……………14
 mini ……………5(2), 6(2)
 mooi ……………4
 morin ……………18
 mujilen ……………7
 mukei ……………14
 muringga ……………6
 mutehekū ……………4
 muwašame ……………16

 na…………10, 15(2)
 nan (han) ……………3
 nan ……………12
 necire ……………13
 nememe ……………6, 10
 neneme ……………11, 12
 ni…………12, 18, 19
 nimanggi ……………13
 ningge ……………9
 niruha ……………15
 niyalma…………9, 14(2)
 niyaman ……………7
 niyengniyeri……3, 13, 19
 nonggime ……………14
 nungnere ……………13

 obuŋi ……………4, 10
 obuha ……………10
 obumbi ……………16
 obume ……………6
 obure…………4
 ocibe ……………9, 11
 ofi…………13, 17(2)
 oho …5, 12, 13(2), 19(2)
 ohode…………4
 ohongge ……………19
 oilori ……………10
 ojarahū ……………12, 16

ojoro ……………9, 17
 ojongge ……………19
 okini ……………15
 oksome ……………4
 olhoho…………19
 olhome ……………3
 olhon ……………13
 onco…………3
 oncoi ……………11
 orho…………19
 oyonggo ……………4

 pi…………17

 sabuhakūngge ………14
 sain ……………18(2), 19
 saišame ……………6
 samsiha ……………7, 19
 san (han) ……………19
 san (tiyen du) ………14
 sargan ……………12, 13
 sarkū ……………17
 sasa ……………15, 16
 se ……………3, 4
 sehe ……………4, 6
 selgiyembi ……………16
 selgiyere ……………4
 seme ……………3(2), 10, 13
 15(2)17, 19
 sihabure ……………4
 silenggi ……………16
 simbe…………4
 siraha ……………14
 siran (siran)……3(2)
 sitahūn ……………3, 5, 7, 14
 sohon…………8
 soorin ……………14(2)
 sucungga ……………2
 sui ……………14
 suntebumbi ……………4
 susai ……………3

šahūrun…………4
 šan ……………11
 šangname…………7
 šangnara…………18
 šun ……………15
 šurdeme ……………14

 tacihiyara ……………11
 taidzu ……………9
 taigiyasa…………13
 takūrafi…………8, 10(2)
 takūrahangge…………10
 tangkan ……………11
 tan ……………14(2), 19
 tasha ……………17
 tehengge ……………7
 teile ……………15, 18
 temgetulehe ………15
 temgetulerengge ……16
 temšerengge ………17
 teni ……………18
 tere ……………3, 4, 11
 tereci…………4
 terei…………15
 tiyen ……………14
 tomofi ……………3
 tucibume ……………7
 tumen ……………5, 15, 17, 19
 tun ……………10
 turgun…………19
 tušaha ……………5
 tuttu ……………9, 11, 13
 tuwai…………4
 tuwakiyabuha ………13
 tuweri…………2, 19

 ucaraha ……………19
 uculeme ……………18
 udu ……………6, 9, 15
 ududu ……………14
 ulhibuhengge…………11

ulhibume	4	wajiha	4, 7	wehe	14, 19
ulhibure	6	waka	18	weihuken	18
ulhirakū	9	wakao	7	weile	5, 6, 7, 8, 12, 19
ume	13	wame	6	wesihun	2, 14, 20
umesi	17	wang	7, 12, 18(2)	yabun	15
unggifi	12	warakū	4	yali	19
unggihe	11	wargi	3, 17	yargiyan	14
urgunjeme	11	wasihūn	7	yaya	3
usin	7, 19	wasimbufi	4, 12, 16	yooni	4, 6, 10
uthai	6, 7, 11, 14	wasimbuha	17(2)	yuwanšuwai	8
uttu	6	wasimbume	11		